

<http://dx.doi.org/10.17703/JCCT.2022.8.1.75>

JCCT 2022-1-9

간호대학생의 생명윤리의식, 간호전문직관이 장기이식 태도에 미치는 영향

Impacts of Biomedical Ethics Consciousness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Attitudes toward Organ transplantation of Nursing Students

공희경*, 윤미진**

Kong Hee Kyung*, Yun Mi Jin**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생명윤리의식, 간호전문직관이 장기이식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 대상자는 G, P시에 소재하고 있는 4년제 간호대학에 재학중인 간호대학생 202명으로 자료수집기간은 2021년 10월 12일부터 10월 22일까지였다. 자료는 SPSS 20.0 통계프로그램의 빈도분석, 평균과 표준편차, t-test와 One 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생명윤리의식은 3.39 ± 0.44 , 간호전문직관은 3.84 ± 0.56 , 장기이식 태도는 3.67 ± 0.25 였다. 장기이식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생명윤리의식의 신생아의 권리, 안락사영역, 간호전문직관의 사회적 인식, 간호의 전문성, 간호계의 역할영역이 장기이식 태도를 52.4%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장기이식 활성화를 위한 간호교육 자료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간호대학생, 생명윤리의식, 간호전문직관, 장기이식 태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n Nursing professionalism on Attitudes of organ transplantation among nursing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among 202 nursing students in G,P city, from october 12 to 22, 2021.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a using t-test, One 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 20.0 WIN program. The average score for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was 3.39 ± 0.44 , Nursing professionalism was 3.84 ± 0.56 and Attitudes of organ transplantation was 3.67 ± 0.25 . Factors Influencing Attitudes of organ transplantation were Right to life of newborn, Euthanasia, Social recognition, Professionalism of nursing and Role of nursing service. These variables accounted for 52.4% of Attitudes of organ transplantation. Based on the outcome of this study, developing an education program related to organ transplantation to contribute to the activation of organ transplantation.

Key words : Nursing students,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Nursing professionalism, Attitudes of organ transplantation

*정회원 진주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제1저자)

**정회원 가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1년 12월 9일, 수정완료일: 2022년 1월 5일

게재확정일: 2022년 1월 8일

Received: December 9, 2021 / Revised: January 5, 2022

Accepted: January 8, 2022

*Corresponding Author: angelymj@hanmail.net

Dept. of Nursing, Kaya University Korea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 의료의 발전은 인간의 평균수명 증가와 생존 기간 동안 건강한 삶을 유지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말기 장기부전환자들의 건강증진의 한계에 대한 대안은 장기이식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장기이식이란 회복 불가능한 장기를 건강한 다른 장기로 대체함으로써 생명연장과 건강증진을 가능하게 하는 의료적 치료기술이며, 국내에서는 1979년 신장이식, 1988년 뇌사자 간이식이 성공하면서 장기이식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그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다[1].

장기부전환자 치료를 위한 장기이식 요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식대기자에 비해 부족한 장기공여는 장기구득과정에서의 장기매매와 같은 비윤리적인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에 2000년 2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장기기증을 전제로 한 뇌사를 인정하며 장기기증이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토대가 마련되었다.

과학과 의료의 발달은 전통적인 윤리이론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도덕적 판단과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데, 인간의 생명과 죽음 및 치료 영역에서도 새로운 윤리적 고민과 도덕적 방안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2]. 생명의료윤리의식은 건강과 관련된 맥락 및 생물학적 관련된 것에서 일어나는 의사결정 과정의 도덕적 차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3]. 생명의료윤리의식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간호사의 간호행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윤리적 문제해결의 기반이 되어 현명하고 확고한 윤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준점을 제시하는 요소이다. 생명의료윤리에 대한 가치관의 정립은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도와주므로 간호의 미래 세대인 간호대학생은 학생시절부터 생명의료윤리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확립하고, 장차 임상에서의 간호를 수행함에 있어 간호현장에서 제기될 수 있는 생명과 죽음, 장기이식 등과 관련된 다양한 윤리적 문제들을 현명하고 올바르게 판단, 해결함으로써 전인간호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4].

전문직으로서 간호에 대한 체계화된 견해와 간호사들의 간호활동과정이나 그 직업의 의식적인 견해를 간

호전문직관이라고 하며, 복잡한 의사결정 상황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무현장에서 개별간호사가 가지고 있는 간호전문직관은 환자에게 제공하는 전반적인 간호의 질과 관련이 있다[5]. 특히, 간호대학생은 생명과 연관된 일에 종사하는 미래의 의료인으로서 장기이식과 같이 도덕적 판단이 요구되는 의사결정 상황에서 전문인으로서의 책임감과 일관되고 올바른 가치관의 함양을 통한 최선의 행동이 요구된다[5]

지금까지 생명의료윤리의식에 대한 연구를 보면 이규숙[6]의 보건의료인과 일반인에 대한 생명의료윤리의식 차이를 분석한 연구, 안혜영 등[7]의 의료계열 대학생들의 생명의료윤리의식조사, 권선주[8]의 간호대학생과 의과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 조사들이 있다. 생명의료윤리의식에 관한 연구는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와 윤리적 가치관, 생명의료윤리의식에 관한 연구[9], 간호전문직관, 생명의료윤리의식, 자기성찰지능간의 상관성 연구[10] 등이 있다. 간호전문직관 연구를 살펴보면 직무만족도와 관련성 연구[11], 비판적 사고성향과 생명의료윤리의식에서의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 연구[12] 등이 있었으며, 장기이식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연구는 김태은[13]의 인체조직기증 및 이식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조사와 권현주[14]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장기이식의 태도를 조사한 연구, 간호사를 대상으로 생명의료윤리의식, 간호전문직관이 장기이식 태도에 관한 연구[15]가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지금까지 장기이식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생명의료윤리의식, 간호전문직관을 살펴본 연구는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유일하다. 요즘과 같이 장기이식건수가 증가하면서 간호사의 역할중대가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미래의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 간호전문직관이 장기이식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장기이식을 바라보는 가치관과 이식간호를 제공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과 간호전문직관, 장기이식 태도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향후 장기이식 활성화를 위한 간호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간호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과 간호전문직관이 장기이식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 간호전문직관이 장기이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함이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 간호전문직관 장기이식 태도 정도를 파악한다.
- 2)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명의료윤리의식, 간호전문직관, 장기이식 태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 간호전문직관 장기이식태도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4)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 간호전문직관이 장기이식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 간호전문직관이 장기이식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G, B시에 소재하고 있는 4년제 간호대학에 재학생인 1, 2, 3, 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가 있는 총 202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서면동의를 받고 자가보고식으로 진행하였다. 그 중 192명의 설문지를 회수하였고 불충분한 응답의 5명을 제외한 187명을 최종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도구

1) 생명의료윤리의식

생명의료윤리의식은 이영숙[17]이 고안한 윤리적 가치관 설문지를 권선주[8]가 수정·보완한 생명의료윤리의식 설문지로 태아의 생명권 5문항, 인공임신중절 6문항, 인공수정 7문항, 태아진단 5문항, 신생아의 생명권 5문항, 안락사 5문항, 장기이식 4문항, 뇌사 5문항, 인간생명공학 7문항의 총 4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type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인간생명을 존중하는 생명의료윤리 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권선주[8]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7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8이었다.

2)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은 윤은자 등[18]이 개발한 29문항을 김영희[19]가 요인분석을 통한 구성타당도 검증으로 문항을 축소한 총 18문항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의 내용은 전문적 자아개념 6문항, 사회적 인식 5문항, 간호의 전문성 3문항, 간호계의 역할 2문항, 간호의 독자성 2문항의 하위영역으로 구분된다. 각 문항은 Likert type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잘 정립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김영희[19]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9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7이었다.

3) 장기이식 태도

장기이식 태도는 김양호 등[20]의 척도를 최현주[21]가 20문항으로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측정도구는 5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문항신뢰도는 최현주[21]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79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0이었다.

4.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2021년 10월 12일부터 10월 22일까지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수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훈련된 연구보조원이 연구목적과 내용 그리고 취지에 대한 사전 설명을 충분히 하고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익명성과 비밀보장을 약속하였으며,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인제라도 어떠한 불이익 없이 거부, 중단 할 수 있음과 참여자의 자료는 부호화하여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연구가 종료된 이후 모두 폐기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5.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WIN 20.0 program을 이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로, 생명의료윤리의식, 간호전문직관, 장기이식 태도는 평균 및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집단별 생명의료윤리의식, 간호전문직관, 장기이식 태도는 t-test와 일원분산분석(ANOVA)을 이용하고, 사후검정은 Duncan's test로 분석하였다.

셋째, 생명의료윤리의식, 간호전문직관, 장기이식 태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넷째, 장기이식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남학생'은 36.9%, '여학생'은 63.1%로 나타났으며, 학년은 '1학년'이 4.8%, '2학년'이 30.5%, '3학년'이 18.2%, '4학년'이 46.5%를 차지하였으며, 종교에서 '종교가 없는' 학생이 49.7%, '기독교'인 학생이 36.9%를 '불교'인 학생이 13.4%를 차지하였으며 학과만족도에서는 '만족'이 36.4%, '보통'이 42.2%, '불만족'이 21.4%를 나타내었으며, 임상실습 유무는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학생'이 64.7%, '임상실습 경험이 없는 학생'이 35.3%로 나타났다. 그리고 헌혈유무는 '헌혈 경험이 있는 학생'이 63.6%, '헌혈 경험이 없는 학생'이 36.4%를 차지하였다. 가족 중 만성질환 유무에서는 '만성질환 가족이 있는 학생'은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N=187)

Category		frequency (%)
Gender	Male	69 (36.9)
	Female	118 (63.1)
Grade	1st	9 (4.8)
	2nd	57 (30.5)
	3rd	34 (18.2)
	4th	87 (46.5)
Religion	none	93 (49.7)
	Christian	69 (36.9)
	Buddhism	25 (13.4)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68 (36.4)
	Moderate	79 (42.2)
	Dissatisfied	40 (21.4)
Clinical experience	Yes	121 (64.7)
	No	66 (35.3)
Experience of blood donation	Yes	119 (63.6)
	No	68 (36.4)
Have a chronic disease in family	Yes	39 (20.9)
	No	148 (79.1)

20.9%, '만성질환 가족이 없는 학생'은 7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래 Table 1과 같다.

2. 연구대상자의 생명의료윤리의식, 간호전문직관, 장기이식 태도 정도

연구대상자의 생명의료윤리의식 정도의 총 평균은 3.39±0.44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으로 신생아의 권리 영역에서 3.57±0.65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간호전문직관 총 평균은 3.84±0.56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으로 간호계의 역할이 4.10±0.87로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났으며, 장기이식 태도는 3.67±0.25로 나타났으며, 인지적 태도가 4.03±0.41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 아래 Table 2과 같다.

표 2. 생명의료윤리의식, 간호전문직관, 장기이식태도 정도
Table 2. Mean score of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nursing professionalism and Attitude of organ transplantation (N=187)

Variables	Average M±SD	Max	Min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3.39±0.44	4.23	2.75
Right to life of embryos	3.39±0.65	4.40	2.20
Artificial abortion	3.14±0.24	3.67	2.83
Artificial insemination	3.17±0.78	4.17	1.50
Fetus	3.47±0.63	4.17	1.50
Right to life of newborn	3.57±0.65	4.40	2.60
Euthanasia	3.41±0.59	4.20	2.00
Organ transplant	3.41±0.68	4.25	2.25
Brain death	3.46±0.73	4.60	2.20
Human biotechnology	3.52±0.73	4.29	3.52
Nursing professionalism	3.84±0.56	4.29	2.57
Self-concept of the profession	4.05±0.69	5.00	2.50
Social recognition	3.83±0.69	5.00	2.80
Professionalism of nursing	3.77±0.66	4.89	2.53
Role of nursing service	4.10±0.87	5.00	2.50
Originality of nursing	3.45±0.83	4.50	1.50
Attitude of organ transplantation	3.67±0.25	4.22	3.07
Emotional attitude	3.45±0.35	4.42	2.43
Cognitive attitude	4.03±0.41	4.66	2.67
Behavioral attitude	3.52±0.31	4.14	2.57

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명의료윤리의식, 간호전문직관, 장기이식 태도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명의료윤리의식은 학년($F=63.346, p=.000$), 종교($F=7.846, p=.001$), 학과만족도($F=46.286, p=.000$), 임상실습유무($t=16.043, p=.000$), 현혈유무($t=3.021, p=.003$)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학년(3.69 ± 0.48), 기독교인 학생(3.52 ± 0.42), 학과에 만족하는 학생(3.83 ± 0.29),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학생(3.61 ± 0.40), 현혈 경험이 있는 학생(3.52 ± 0.48)이 생명의료윤리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은 학년($F=187.674, p=.000$), 종교($F=17.475, p=.001$), 학과만족도($F=50.644, p=.000$), 임상실습유무($t=12.127, p=.000$), 현혈유무($t=2.176, p=.03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학년(4.24 ± 0.13), 기독교인 학생(4.13 ± 0.38), 학과에 만족하는 학생(4.32 ± 0.19),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학생(4.20 ± 0.29), 현혈 경험이 있는 학생(3.96 ± 0.57)이 간호전문직관이 높게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장기이식 태도는 학년($F=20.952, p=.000$), 종교($F=8.603, p=.000$), 학과만족도($F=27.642, p=.000$), 임상실습유무($t=6.671, p=.000$), 현혈유무($t=2.070, p=.040$)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학년(3.80 ± 0.47), 기독교인 학생(3.76 ± 0.42), 학과에 만족하지 않는 학생(3.77 ± 0.42),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학생(3.74 ± 0.25), 현혈경험이 있는 학생(3.72 ± 0.20)이 장기이식 태도가 높게 나타나 아래 Table 3과 같다.

4. 연구대상자의 생명의료윤리의식, 간호전문직관, 장기이식 태도의 관계

연구대상자의 생명의료윤리의식과 장기이식 태도의 상관성은($r=.215, p=.00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간호전문직관과 장기이식 태도의 상관성은($r=.482, p=.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Table 4와 같다.

5. 연구대상자의 생명의료윤리의식, 간호전문직관이 장기이식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대상자의 생명의료윤리의식, 간호전문직관이 장기이식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생명의료윤리의식, 간호전문직관의 하위변수를 독립변수로, 장기이식 태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을 검토한 결과,

공차한계는 각각 $0.801\sim 0.973, 0.898\sim 0.946$ 으로 0.1 이상으로 나왔으며, 분산팽창인자를 구한 결과 $1.026\sim 1.246, 1.074\sim 1.154$ 의 2 이하로 낮게 나와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상자들의 생명의료윤리의식의 하위영역인 신생아의 권리, 안락사가, 간호전문직관의 하위영역인 사회적 인식, 간호의 전문성, 간호계의 역할영역이 장기이식 태도를 52.4%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래 Table 5와 같다.

IV.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 간호전문직관, 장기이식 태도를 조사하고 생명의료윤리의식, 간호전문직관, 장기이식 태도의 관계를 이해하고, 생명의료윤리의식, 간호전문직관이 장기이식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향후 장기이식 활성화를 위한 간호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간호대학생들의 생명의료윤리의식 점수는 5점 만점에 3.39점을 나타내었고 이금재 등[22]의 간호대학생들의 생명의료윤리의식 점수는 3.04점, 김진영 등[23]의 간호대학생들의 생명의료윤리의식은 5점 만점에 2.95점, 김태경 등[11]의 간호대학생들의 생명의료윤리의식 점수는 3.05로 나타나 본 연구가 약간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생명의료윤리의식의 하부영역을 살펴보면 신생아의 권리가 높은 수준으로 인공임신중절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진영 등[23]의 신생아 권리가 높은 수준으로, 인공임신중절이 낮은 수준으로 나온 결과와 일치한다. 생명의료윤리의식 중 신생아의 권리가 높은 점수를 보인 결과는 환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생명에 대한 종결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간호대학생의 견해를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생명의료윤리의식 중 인공임신중절이 낮은 수준을 보인 결과는 우리사회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간호대학생에게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간호전문직관 점수는 5점 만점에 3.84점으로 나타났고, 박미정 등[24]의 간호대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 점수는 5점 만점에 3.66점, 김진영 등[23]의 간호대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 점수는 3.97점으로 나타나 비슷한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간호전문직관의 하부 영역을 살펴보면 간호계의 역할이 높은 수준으로, 간호의 독자성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3.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명의료윤리의식, 간호전문직관, 장기이식 태도의 차이

Table 3. Difference in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Nursing professionalism and Attitude of organ transplantat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Category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nursing professionalism			Attitude of organ transplantation		
		M±SD	<i>t/F</i>	<i>p</i> (Duncan)	M±SD	<i>t/F</i>	<i>p</i> (Duncan)	M±SD	<i>t/F</i>	<i>p</i> (Duncan)
Gender	Male	3.38±0.47	-299	.765	3.92±0.54	1.500	.113	3.76±0.19	3.934	.113
	Female	3.40±0.41			3.79±0.57			3.61±0.20		
Grade	1st	2.90±0.30	63.346	.000 (4>3>2,1)	3.25±0.23	187.674	.000 (4>3>2,1)	3.52±0.29	20.952	.000
	2nd	3.02±0.11			3.18±0.50			3.58±0.11		
	3rd	3.40±0.26			4.07±0.29			3.60±0.26		
	4th	3.69±0.48			4.24±0.13			3.80±0.47		
Religion	none	3.36±0.45	7.846	.001 (1,2>3)	3.67±0.44	17.475	.000 (2>1,3)	3.60±0.45	8.603	.000
	Christian	3.52±0.42			4.13±0.38			3.76±0.42		
	Buddhism	3.16±0.45			3.65±0.29			3.68±0.45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3.83±0.29	46.286	.000 (1>3>2)	4.32±0.19	50.644	.000 (1>3>2)	3.74±0.29	27.642	.000 (1,3>2)
	Moderate	3.41±0.28			3.48±0.90			3.53±0.28		
Clinical experience	Dissatisfied	3.16±0.42	16.043	.000	3.98±0.79	12.127	.000	3.77±0.42	6.671	.000
	Yes	3.61±0.40			4.20±0.29			3.74±0.25		
Experience of blood donation	No	3.00±0.90	3.021	.003	3.19±0.27	2.176	.031	3.53±0.19	2.070	.040
	Yes	3.52±0.48			3.96±0.57			3.72±0.20		
Have a chronic disease in family	No	3.32±0.39	.650	.518	3.77±0.55	1.078	.228	3.64±0.27	.009	.933
	Yes	3.89±0.54			3.89±0.50			3.67±0.24		
	No	3.82±0.57			3.82±0.41			3.67±0.26		

표 4. 연구대상자의 생명의료윤리의식, 간호전문직관, 장기이식의 태도와와의 관계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nursing professionalism and Attitude of organ transplantation

Variables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nursing professionalism	
	<i>r(p)</i>			
Attitude of organ transplantation	.215 (.003)		.482 (.000)	

표 5. 연구대상자의 생명의료윤리의식, 간호전문직관이 장기이식 태도에 미치는 영향

Table 5. Factors influencing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Nursing professionalism for Attitude of organ transplantation

Variables	B	S.E	β	<i>t</i>	<i>p</i>
Social recognition	-.240	.044	-.662	-5.407	.000
Professionalism of nursing	.396	.044	1.021	8.935	.000
Role of nursing service	.081	.019	.280	4.323	.000
Right to life of newborn	-.274	.083	-.709	-3.313	.000
Euthanasia	-.353	.125	-.831	-2.813	.000

R²=.560, Adj. R²=.524, F=15.609, p<.001

특히 간호의 독자성이 낮은 수준의 결과를 나타내는 구혜자 등[25]의 연구와 일치하고, 이호진[26]의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하지만 이상의 모든 연구 결과에서 간호사의 사회적 지위, 보상 및 대우 등에 대한 문항으로 측정 한 사회적 인식은 공통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즉 학생들이 인지하는 간호의 전문성이나 독자성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것에 비하여 간호사들이 받는 대우나 사회적 지위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취약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기이식 태도 점수는 5점 만점에 3.67점으로 이호숙[15]의 간호사 대상의 연구에서 3.51점과 유사하고, 구혜자[25]의 3.20점보다 높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하위영역을 보면 인지적 영역이 4.03점으로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이호숙[15]의 인지적 영역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주는 것과 동일하며, 장기이식에 대하여 지식과 정보를 인지하고는 있으나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고 행동적 태도를 취하는 정도는 낮다고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생명윤리의식은 학년이 높을수록,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을수록, 학과에 만족도 할수록,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학생일수록, 헌혈 경험이 있을수록 생명윤리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구혜자[25]의 학년이 높아질수록 생명윤리의식이 높아진다는 결과와 동일하고, 김태경[11]의 학과생활에 만족할수록 생명윤리의식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와는 동일하며, 김진영[23]의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학생일수록, 종교활동을 하는 학생일수록 생명윤리의식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와 동일하다.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은 학년이 높을수록, 학과생활에 만족 할수록,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학생일수록, 헌혈경험이 있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호진[26]의 연구에서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다는 연구결과와 동일하다. 간호대학생의 장기이식 태도는 학년이 높을수록, 학과생활에 만족 할수록,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학생일수록, 헌혈경험이 있을수록 장기이식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들의 생명윤리의식과 장기이식 태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r=.215, p=.003$)를 나타내었으며 간호전문직관과 장기이식 태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r=.482, p=.000$)를 보였으며, 이는 생명윤리의식, 간호전문

직관의 장기 이식에 대한 태도와 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선행연구가 존재하지 않아 비교할 수 없지만 생명윤리학과 간호전문직관이 높을수록 장기 이식에 대한 태도 또한 긍정적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에게 체계적이고 올바른 생명윤리교육과 간호전문직관 향상을 위한 교육은 차후 장기기증이나 이식의 실천이라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대상자들의 생명윤리의식의 하위영역인 신생아의 권리, 안락사가, 간호전문직관의 하위영역인 사회적 인식, 간호의 전문성, 간호계의 역할영역이 장기이식 태도를 52.4%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호숙[15]의 연구와 일치하며, 생명윤리의식과 간호전문직관이 장기이식의 태도에 유의한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생명윤리의식과 간호전문직관이 높아질수록 장기이식의 태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간호학과 교육과정 개발단계에서 생명윤리의식관련 교과목과 간호전문직관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하여 장기이식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생명윤리의식, 간호전문직관이 장기이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장기이식 활성화를 위한 간호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결과는 연구대상자의 생명윤리의식 정도의 총 평균은 3.39 ± 0.44 점, 간호전문직관 총 평균은 3.84 ± 0.56 점, 장기이식 총 평균은 3.67 ± 0.25 점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명윤리의식과 간호전문직관은 학년, 종교, 학과만족도, 임상실습유무, 헌혈유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장기이식 태도는 학년, 종교, 학과만족도, 임상실습유무, 헌혈유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생명윤리의식과 장기이식 태도는 정의 상관관계($r=.215, p=.003$)를 나타내었으며 간호전문직관과 장기이식 태도의 관계는 정의 상관관계($r=.482, p=.000$)를 보였으며, 대상자들의 생명윤리의식의 하위영역인 신생아의 권리, 안락사가, 간호전문직관의 하위영역인 사회적 인식, 간호의 전문성, 간호계의 역할, 간호의 독자성 영역이 장기이식 태도를 52.4%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 간호전문직관과 장기이식 태도는 서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을 위한 생명의료윤리의식을 함양 할 수 있는 체계화된 훈련프로그램과 맞춤형 간호전문직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추후 장기이식 활성화 정책에 적용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일개학교를 표의표집 하였으므로 추후 다양한 지역과 표집방법으로 반복연구가 요구된다.

References

- [1] Y. S. Seo, The Knowledge and Attitude about Brain Death, Organ Donation and Organ Transplantation in the Organ Donation Candidate.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Kwan Dong University. Gangneung, 2018.
- [2] B. H. Gong, "Biomedical ethics and Nursing", The chung-Ang Journal of Nursing, Vol. 5, No. 1, 2001.
- [3] S. Gorovitz. Bioethics and social responsibility. the Monist, Vol. 60, No. 1. 3-15. 1977. <http://dx.doi.org/10.5840/monist197760128>
- [4] K. M. Park, "A Study on Attitudes of Clinical Nurse's towards Death and Dying patients", Keimyung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Vol.7, No.1, 1-10, 2003.
- [5] Y. R. Oh,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s Brain Dead Organ Donation among Nurses Working at Special Units. Major in Nursing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Seoul, 2018.
- [6] G. S. Lee,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f Health Care Professionals and Non Health Care Professionals", Unpublished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Kyung Hee University, Seoul, 2009.
- [7] H. Y. Ahn, B. S. Cho, S. H. Choi, W. Choi, Y. M. Go, "Bioethical Perception between Nursing Students and Medical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4, No1, 98-107, 2008.
- [8] S. J. Kwon, "A study on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f the nursing students and medica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Keimyung University, Daegu, 2003.
- [9] Y. H. Jo. Factors Affecting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f the Nursing Students before Clinical Practice In Convergence Era. Vol 8, No 10, 359-369, 2017. <https://doi.org/10.15207/JKCS.2017.8.10.359>
- [10] J. Y. Kim, J. R.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Professionalism,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and Intrapersonal Intelligence in th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9, No4, 435-441, 2021. <http://dx.doi.org/10.14400/JDC.2021.19.4.435>
- [11] H. I. Park, K. M. Park, K. H. Lee. The Correlation between Nursing Professional Values and Job Satisfaction Depending on the Types of Visiting Nurses' Personality.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Vol..28 No. 4 208-220. 2019. <http://dx.doi.org/10.5807/kjohn.2012.21.2.77>
- [12] O. S. Lee, E. J. Kim. Mediating Effect of Nursing Professionalis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onsciousness of Bioethics in Nursing Students. Vol 16, No 4, 251-258, 2018. <https://doi.org/10.14400/JDC.2018.16.4.251>
- [13] T. E. Kim, "General people's attitudes regarding human tissue donation and transplant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 Yonsei University, Seoul, 2004.
- [14] H. J. Kwon, "Hospital Nurses' Attitudes concerning Human Tissue Donation and Transplant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 Kyung Hee University, Seoul, 2009.
- [15] H. S. Lee, "The influence of clinical nurse's biomedical ethics consciousness and professional intuition on the attitude of organ transplantation Department of Medicolegal Investigation Graduate School of Forensic and Investigative Scienc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2017.
- [16] Y. S. Lee, "A study of the Ethical Values of Korean Nurses ",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20, No. 2, 249-270, 2004.
- [17] E. J. Yun, Y. M. Kwon, O, H, Ann,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s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35 No. 6 , 1091-1100, 2005.
- [18] Y. H. Kim. Relationship of Self Efficacy, Self-Directedness and Practice Satisfaction to Clinical Practice Educ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 Nursing Vol. 16 No. 3. 307–315. 2009.
- [20]Y. H. Kim. Study on the Knowledge and Attitude of Civil Servants at City, County, Ward Offices and Health Centers Engaged in OrganTransplant Registration upon Organ Donation and Transplant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Seoul. 1999.
- [21]H. J. Choi, The Effect of University Students' Knowledge on Attitude and Practice Will to Organ Donation in Brain dead donors yunoo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Korea University. Seoul. 2012.
- [22]K. J. Lee, E. Lee, Y. S. Park, Comparison on Influencing Factors on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in Nursing Students and General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12, 377-388, 2016.
- [23]J. Y. Kim, J. R.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Professionalism,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and Intrapersonal Intelligence in th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9, No4, 435-441, 2021.
- [24]M. J. Park, H.A. Yoo, Influence of Cultural Competence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5 No.1, 38-47, 2019.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9.25.1.38>
- [25]H.J. Gu, O. S. Lee, The Correlation between Nurse's image, Biomedical ethics and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11. 7356-7366, 2015. <http://dx.doi.org/10.5762/KAIS.2015.16.11.7356>
- [26]H. J. Lee, Nursing students' sexual harassment experience in clinical practicum and its association with nursing professionalism and post-traumatic stress. College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Seoul. 2019.